

KIA, 우승하려면 실책을 줄여라

6월까지 80경기 84개 실책
삼성 49개보다 압도적 많아
실책 많으면 마운드에도 악영향



KIA 타이거즈의 우승 도전에 '실책'이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KIA는 올 시즌 기록 많은 타선과 이어진 부상에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잠시

LG 트윈스에 1위를 내주기는 했지만 선두에서 시즌을 보내고 있다.

KIA가 놓치지 않고 있는 1위 타이틀도 있다. 바로 '실책'이다.

6월까지 80경기를 치른 KIA는 84개의 실책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실책이 적은 삼성 라이온즈(82경기)의 49개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1위다. 2위 SSG 랜더스의 71개(82경기)와 비교해도 13개가 더 많다.

내외야에서 고르게 수비 실수가 이어지고 있고, 실책이 실점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타격은 더 크다.

올 시즌 최악의 경기로 꼽을 수 있는 '사직 무승부'에도 실책이 있었다.

KIA는 이 경기에서 4회까지 14점을 뿔아내면서 14-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15-15 무승부를 남겼다.

4회 시작과 함께 3루수 김도영의 송구 실책이 나왔고, 이 이닝에서 선발 제임스 네일이 고승민에게 만루포를 맞으면서 대거 6실점을 했다. 5회에도 실점이 올라가면서 네일은 5이닝 9실점의 성적표를 남겼다. 실책으로 인해 자책점은 5점으로 줄어들었지만 실책의 여파가 컸다.

실책은 경기의 일부이지만 마운드 위기 속 수비 실수가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KIA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범호 감독도 "실책이 가장 고민이다"고 말했다.

실책 수가 많아서 점수를 주는 상황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책이 마운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범호 감독은 "개인적으로 수비 코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야수들을 모아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 것 같다. 어떤 부분이 많아서 실책 수가 많은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투수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책점은 안 올라가지만 실책으로 인해 타선이 밀리면서 찬스에 걸려

서 점수를 주는 상황이 많다. 실책 수가 줄어야 점수를 주는 상황도 줄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범호 감독이 분석한 실책 요인은 '심리'다. 그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부분 체크하면서 안정적인 내야, 외야 수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책이 실점으로 연결되고 이게 또 경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야수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KIA는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1위 팀이다.

우승이라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긴장감 있는 경기들을 펼쳐야 한다. '가을잔치'에서는 공 하나하나가 갖는 힘이 다르다.

프로답게 부담감을 이기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실책을 줄여가야 한다.

KIA는 2일 시작된 삼성과의 원정경기를 끝으로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어 9일 LG 트윈스와외의 방문 경기를 통해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우승을 다투는 경쟁자이자 작전과 뛰는 야구를 많이 구사하는 팀인 만큼 수비가 중요한 시리즈가 될 전망이다.

짧은 올스타 브레이크지만 원점에서 또 다각적으로 수비 문제를 돌아보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가 실책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면서 우승 행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공을 기다리고 있는 KIA 3루수 김도영. <KIA 타이거즈 제공>

박정아, 페퍼스 '연봉퀵' ...이한비·한다혜 뒤이어

김연경 3시즌 연속 최고 몸값
V리그 24-25시즌 선수 등록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박정아가 2024-2025 시즌 V리그 여자부 연봉 3위에 올랐다.

KOVO(한국배구연맹)는 지난 1일 도드람 2024-2025시즌 V리그에서 활약할 선수 명단과 연봉 및 옵션을 공시했다.

'연봉퀵'은 김연경(흥국생명)과 강소희(한국도로공사)로 이들은 각각 연봉 5억원, 옵션 3억원 총 8억원을 받는다. 특히 김연경은 2022년 중국 상하이브라이트에서 국내 리그로 복귀한 이후 3시즌 연속으로 여자부 최고 보수 선수의 자리를 지켰다.

이어 페퍼스의 박정아가 연봉 4억7500만원, 옵션 3억원 총 7억7500만원에 계약하며 전체 3위, 팀 1위에 올랐다.

여자부 평균 보수는 지난 23-24시즌(1억5200만원) 대비 16% 오른 1억61000만원이며, 페퍼스의 평균 보수는 1억 4912만5000원이다.

페퍼스에서는 박정아의 뒤를 이어 이한비가 연봉 2억3000만원, 옵션 1억2000만원 등 총 3억 5000만원에 계약했으며, 한다혜(2억8000만원), 하혜진(1억6000만원), 이원정(1억3000만원)이 구단 내 보수 3, 4, 5위를 기록했다.

여자부 7개 구단 총 103명이 등록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페퍼스는 16명(박정아·이한비·한다혜·하혜진·이원정·채선아·이예림·박은서·박사랑·박경현·임주은·박연화·류혜선·박수빈·염어령·이주현)이 등록을 완료했다.

한편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의 한승수가 연봉 7억5000만원, 옵션 3억3000만원 총 10억8000만원으로 4시즌 연속 남자부 최고 보수 선수로 이름을 올리며, 남녀부 통틀어 유일하게 총액 10억원을 넘었다.

뒤이어 대한항공 정지석이 총 9억2000만원(연봉 7억원, 옵션 2억2000만원)으로 2위, OK금융그룹 이민규가 총 9억8000만원(연봉 8억원, 옵션 1억8000만원)에 계약을 마치고 보수 총액 3위에 올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박정아가 2024-2025시즌 V리그 여자부 보수 총액 3위에 올랐다. 사진은 박정아가 스파이크를 하고 있는 모습.

'미리보는 배구' 페퍼스, 현대건설과 연습경기

무안서 9~13일 전훈... 12일 진행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무안에서 현대건설 배구단과 연습경기를 치른다.

페퍼스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현대건설과의 연습경기를 진행한다.

이번 경기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하계 전지훈련으로 무안을 찾는 현대건설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강성형 감독이 이끄는 현대건설은 2023-2024 시즌 V리그에서 정규리그 1위와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이루며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수원에 연고를 둔 현대건설이 무안 방문을 알리자 지역 배구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시즌에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페퍼스에는 이번 연습경기가 장소선 신임 감독 체제로 새롭게 준비 중인 새 시즌의 경기력을 시험할 기회다.

페퍼스 관계자는 "지난 시즌을 마무리한 후 페퍼

스 선수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번 경기에서 이기겠다는 마음보다는 우리 선수단에 생긴 변화와 그간의 훈련들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기는 무료 관람으로, 사전 신청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한다. 경기 생중계는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양효진, 김다인, 이다현, 정지윤 등 현대건설 선수단은 연습경기가 끝난 뒤에는 팬사인회를 통해 지역 배구 팬들과의 소통에 나선다.

현대건설 선수단은 야구장도 방문한다.

현대건설은 오는 13일 KIA와 SSG의 경기가 열리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찾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다. 이날 양효진과 강성형 감독은 각각 시구와 시타를 맡아 'V리그 여자부 통합우승' 기운을 KBO리그 1위 KIA에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 현대건설 선수단은 이날 교대 이벤트에 참여해 팬들을 만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국내파' 박현경 vs '해외파' 김효주·최혜진 격돌

KLPGA 롯데오픈 출격

미국 무대에서 활동하는 최혜진과 김효주가 이번 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 출해 처음 출격한다.

이번 주 대회는 4일부터 나흘간 인천시 배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미국·오스트랄아시아 코스(파72·6655야드)에서 총상금 12억원, 우승 상금 2억1천600만원을 걸고 열리는 롯데 오픈이다.

아마추어 신분으로 두차례 우승한 것을 포함해 KLPGA 투어 통산 11승을 수확한 최혜진은 최근에는 우승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지만, 대회가 열리는 배이즈베스트 골프클럽이 반갑기만 하다.

최혜진은 난코스인 김효주는 배이즈베스트에서 열린 작년 롯데 오픈에서 우승했고, 2021년 같은 코스에서 열린 롯데 오픈에서는 3위에 올랐다.

작년 9월에도 같은 코스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공동 14위를 하는 등 이 코스에서

강세를 보였다.

KLPGA 투어 14승(아마추어 우승 포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6승의 김효주도 우승 경쟁에 나선다.

2020년 롯데스카이힐 제주에서 열린 롯데 오픈(당시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우승자이기도 한 김효주는 작년 롯데 오픈에서는 공동 3위에 올랐다.

2024 파리 올림픽 여자골프에 한국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김효주는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LET) 아랍코 팀시리즈 한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샷 감각을 조율했다. 이들과 함께 최근 2주 연속 우승을 포함해 이번 시즌 3승을 올리며 상승세를 탄 박현경도 출전한다. 박현경은 시즌 대상 포인트와 상금 부문에서 1위에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

박현경의 상승세에 밀려 잠시 주춤했던 이예원도 시즌 네 번째 우승으로 각종 기록에서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 콘서트 오페라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
일시 : 2024-07-26(금) 19:30
2024-07-27(토) 15:00,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문의 : 062-412-2502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Romantic>
일시 : 2024-07-18(목) 11:00,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

